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1장1 - 27 절)

호세아는 유다 에네사람의 왕 곧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예언 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전 8 백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남쪽에서 호세아가 예언을 할때 북쪽에서는 아모스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드고아의 목동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토록 하고, 동시에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동시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그리고 크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 1. 불합리한 명령

이 시대는 물질문명주의가 매우 팽배했던 사치한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유와 헌신을 외치고 있었지만 국가는 평안하여 자기 안락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이 풍부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가증한 종교와 부패한 사회상, 문란한 법질서, 특권층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무엇보다 고멜처럼 타락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영육간에 부요해진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열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복되는 역사가운데 문명의 쇠퇴기를 맞는 국가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문명과 물질의혜택을 바르게 사용하지못했기 때문입니다.

### 2.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

#### (1) 이스라엘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흠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변함 없이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자는 이렇게 흠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백성이 될 것임을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 (2) 로루하마

고멜이 두번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동정하다,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로루하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야할 길을 가지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길

을 가지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기만하면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 (3)로암미

고멜은 세번째로 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이름은'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이상 내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입을 통해서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 3.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흠으신다는 뜻 외에 내가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흠으신 백성을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2:1).

전에는 내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차 국가적 힘이 증가되고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며 흠어졌던 남북이 결합되는 복도 받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국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세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11절).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증오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떠나 다시 창녀의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고멜은 불신실한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말되 특별히 부도덕한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합니다.

하나님은 반심이 아닌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간음, 불순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 우리교회는 공동의회 결의 없는 지출은 하지 못한다

## - 교회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당회파행으로 -

서울교회 한 해의 사업계획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 특별제직회까지입니다. 이에 당회는 차기년도 사업을 위해 8월 장로수련회에서부터 윤곽을 잡아가며 11월 정책협의회가 열릴 때까지 심사숙고하여 교회의 모든 사업을 조율하고 조정하여 정책협의회에서 얻어진 최종안을 당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키므로 일 년의 교회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장로교회는 담임목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구교회와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당회는 8월 장로수련회를 하지 못함은

물론 10월, 11월은 당회 파행, 12월 당회 미소집으로 정책협의회도 열지 못하였으며, 2017년 섬김위원회도 임명하지 못하여 각 부서의 예산은 물론 교회 전반에 예산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은 매년 말 예·결산당회와 특별제직회를 거친 후 새해 첫 주일 공동의회에서 전년도 결산 및 새해 예산안을 승인하여 이것을 근거로 새해의 모든 결재 집행을 합니다. 만일 지출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액이라도 지출을 했다가 공동의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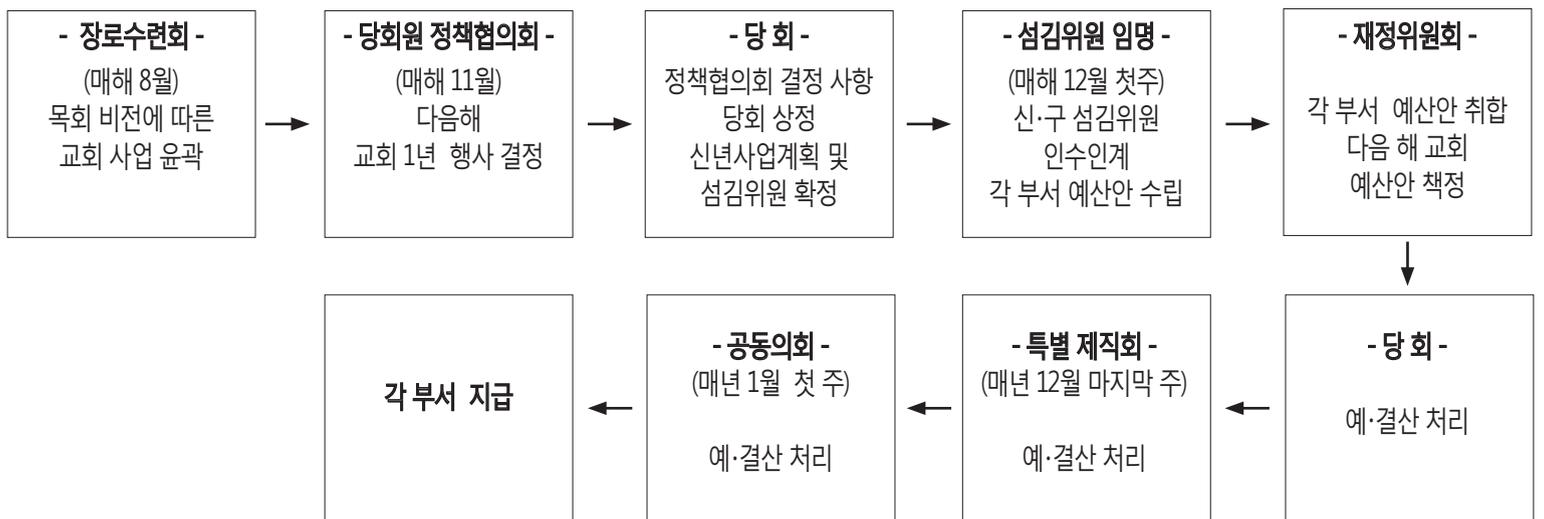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지난

수요예배에서 이를 마치 사무국장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처럼 인신공격성 광고를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10월 이후 당회를 파행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지 않아 **당회로 하여금 예산안을 세우지 못하게 한 것은 담임목사의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행정실무부서인 사무국이 당회에서 예산안 승인이 날 때까지 모든 부서의 결재를 집행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은 오직 당회의 결정한 바에 따를 뿐이니 사무국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서기 노문환 장로

## 서울교회 예산 집행과정(도표참조)



## 공예배 기도자는 담임 목사 독단으로 바꿀 수 없다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서준권 목사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박두호 장로
김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오르가니스트	김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1:11-12	인 도 자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1:1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인 도 자
찬 송 Hymn	5(3)	다 합 계	* 찬 송 Hymn	5(3)	다 합 계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계	다 합 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계	다 합 계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 1)	다 합 계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 1)	다 합 계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계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계
기 도 Prayer	말 은 이	말 은 이	기 도 Prayer	말 은 이	말 은 이
찬 송 Hymn	550(248)	다 합 계	찬 송 Hymn	550(248)	다 합 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90:1-17	인 도 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90:1-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계	다 합 계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계	다 합 계
봉헌 Offering	다 합 계	다 합 계	봉헌 Offering	다 합 계	다 합 계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계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계

담임목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 주일예배 공기도와 수요예배, 찬양예배의 공기도를 당분간 부목사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이 결정은 당회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예배 시 기도자를 바꾸는 것은 담임목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다. 담임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 설교하기 직전 매년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위한 광고를 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장로들은 이런 성도님들로부터 수많은 항의 문자를 받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의 법과 질서는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이다. 열세를 이유로

당회를 파행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장로교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교회가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교회가 정상화 되기를 기도한다.

선교보고 - 마다가스카르

# 절대적 진리의 예수님!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절대적 진리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망고나무 아래서  
2016 성탄절 날  
이재훈 · 박재연 선교사



자궁 탈출증 환자와 거대자궁경부용종 환자가 헬기를 타고 우리 오피스에 왔습니다. 자궁탈출증 환자는 현재 26세 인데 10년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 질환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함께 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습니다. 자궁을 위로 당겨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자궁경부 용종 환자는 56세인데 3년전부터 폐경이 되면서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병이 생기면서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 남편에게 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는데 남편 밥지어 먹이려면 힘드니 앞으로는 혼자 사시겠다고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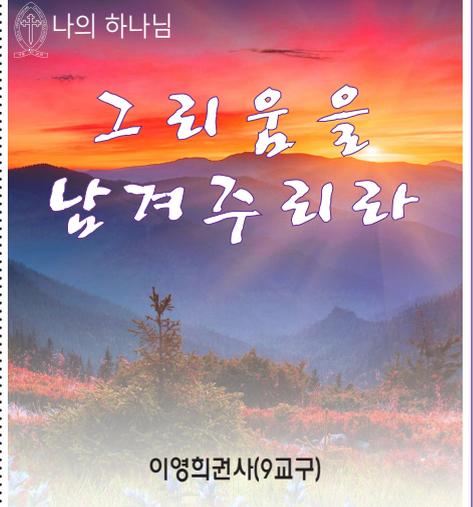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에 몹시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고 후 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집에 있다가 욕창이 심하게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삼촌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거절하여 돌려보낸 일이 맘에 걸립니다. 이 아이는 걸을 수 없어서 왕진을 가거나 차를 보내어 데려와야 하는데 재료를 떠나서 이 한사람을 위해 써야하는 시간과 매일 차를 보내어 환자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일의 버거움을 생각해서 거절했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네가 배부르길 바란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나 다 도와주겠는가 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바로 그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9년째 계속 되어지는 마다가스카르 부족을 위한 기도회



## 이영희권사(9교구)

저녁노을 같은 인생을  
붉게 물들이는 태양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며  
힘차게 솟아오른다

잠시도 쉬지 않고  
대지와 바다에  
뜨거운 열기와 환한  
빛을 공급하며  
동쪽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달려간다

마지막 종착지 서쪽 하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아름답게 비추며 마지막을 장식한다  
아, 저 태양은 마지막 빛을 발할 때  
더욱 아름답다

인생은 태어남이 있고  
임종의 때가 있을진대  
태어날 때  
기쁨과 사랑의  
환호를 받았던 것처럼  
마칠 때는  
더욱 큰 사랑과 그리움을  
남겨주리라

저녁하늘 붉게 물들이는  
태양처럼  
우리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못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선과 의에 흔적만을 남기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 빛나는 삶이 되기를...



##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대책과 실제

오승중 부장  
(호산나 대학)

호산나 대학은 일산 홀트학교 내 진로직업특수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해 12월 15일 (목)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대책과 실제'라는 주제로 고양, 일산, 김포, 파주 지역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11월 10일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대책'이라는 주제로 본교 이동귀 부학장님의 학부모 교육 후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장애자녀를 위한 평생대책 수립에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와 평생대책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의 심화과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아버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저녁 시간 (19:30 ~ 21:30)에 진행되었으며, 100여명 이상 학부모님이 참석하여 자녀의 평생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에 나선 이동귀부학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른 경증화, 평균수명증가로 인한 노년기의 장기화,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취업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의 필요성 및 조기 평생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대책은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나, 법적 장치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



홀트학교 내 강당에서 학부모 연수회를 하고 있는 장면

- 첫째, 부모사후 우리 아이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장래주거)
- 둘째, 부모사후 우리 아이 누가 돌봐 줄 것인가? (장래 보호자)
- 셋째,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안전하게 내 자녀의 안녕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재정계획)

진로직업특수지원센터 신상희부장은 “학부모들이 막연하게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만 했었는데 이번 강연회를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갖는 법적 위치와 부모사후 장애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호산나대학은 발달장애인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평생대책을 위한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는 꼭 필요한 준비”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대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⑥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13일(금) 한국기독교교회연맹(총장, 교장, 원장) 정기총회와 회원연수회 특강을 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  
노문환 장로, 서문석 장로, 이관규 장로, 임상현 장로, 하인선 장로, 양준경 장로, 최광성 장로, 이계홍 장로, 이강진 장로, 오치열 장로, 송인권 장로, 안인호 장로, 최형열 장로, 차도훈 장로, 홍일성 장로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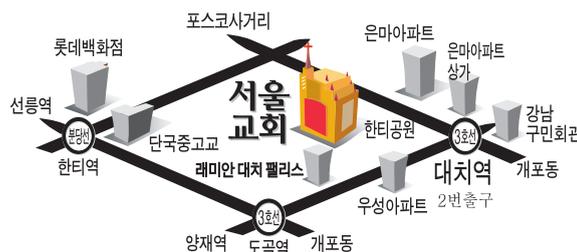
1.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2.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신 모든 환우들이 새해에는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3.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칠 배나 더하셔서 말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